

중학교 과학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업성취도 및 자기주도적 학습 특성에 미치는 효과

손성현 · 김상달
(부산대학교)

현대사회는 복잡한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요구되고 있으며, 이러한 이유로 제 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성 신장과 창의적 성장을 극대화하여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. 그러나 기존의 교육이 정보화 사회에서 요청되는 창의성, 논리적 사고력, 정보처리능력,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등을 길러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부각되고 있다.

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 교과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IPER과 문제중심학습(PBL)이 과학 교과 학업 성취도와 자기주도적 학습 특성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IPER 수업 모델과 PBL 수업 모델의 적용이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·분석하기 위한 사전·사후 검사의 결과는 IPER 수업 모델을 적용한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.

둘째, IPER 수업 모델과 PBL 수업 모델의 적용이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·분석하기 위한 사전·사후 검사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IPER이 PBL보다 더 효과적이고 하위요소 가운데 ‘개방성’, ‘자아개념’, ‘술선 수범’, ‘미래 지향적 자기이해’, ‘자기 평가력’은 IPER이 더 효과적이었다. 반면에 ‘창의성’은 PBL이 더 효과적이었다. 그러나 하위요소 가운데 ‘책임감’, ‘학습 열성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.

셋째, IPER 수업 모델과 PBL 수업 모델의 적용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비교·분석하기 위한 사후 설문 결과 두 모델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

내었다. 그리고 두 모델을 비교해 본 결과는 IPER이 PBL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.

교신저자

손성현 (loneiv@hanmail.net)